

#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의 ‘재미’를 창출하는 서술 방식 연구

최배은\*

1. 서론
2. 서술 태도와 서술 대상
3. 서술 방식 및 효과
  - 3-1. 탐사 과정의 기술과 대상 묘사를 통한 ‘현장감’
  - 3-2. 모험서사를 통한 ‘긴장감’
  - 3-3. 기자의 내면 고백을 통한 ‘공감’
  - 3-4. 세태 비평을 통한 ‘쾌감’
4. 결론

## 국문요약

『별건곤』은 대중의 취미 진작을 표방한 최초의 잡지로서 대중문화의 근대적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자료이다. 『별건곤』 편집진은 대중적 호응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재미’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 중 ‘탐사 기사’는 독특한 서술 전략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1930년대 탐정소설의 서술에도 영향을 미쳐 주목을 요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를 대상으로 ‘재미’를 창출하는 서술 방식을 연구하여 『별건곤』의 대중적 글쓰기 방식의 일단을 밝혀 보았다.

『별건곤』의 탐사 기사는 기자들이 편집국장의 명령을 받고 제한된 시

---

\* 숙명여대 강사

간 동안 특정 공간을 조사한 뒤, 그에 대해 보고하는 기사이다. 서술자인 기자들은 곧 탐사자로서 탐사의 기획에서부터 준비, 진행, 후속 작업 및 기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탐사 대상은 주로 '경성'으로서 특정 시간대의 거리나 범죄 소굴, 색주가, 하숙촌, 가정집과 같은 내밀한 공간이다. 기자들은 탐정처럼 대상 공간으로 잠입하여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해소하고 여러 재미를 불러일으킨다.

탐사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대상을 생생히 묘사하며 현장에서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현장감을 준다. 기자들의 변장과 잠입취재를 활용한 모험서사는 긴장감을 더하며 흥미를 높인다. 빈번한 기자의 내면 고백은 탐사 주체와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높인다. 또 대상의 비리를 폭로하고 세태를 비평함으로써 쾌감을 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는 근대 도시의 이면을 엿보는 입체적인 서술 방식을 창출한 의의가 있다. 즉 독자들이 보고 싶지만 보기 힘든 '사적 공간'을 기자들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그동안 주요하게 다루지지 않았던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를 대상으로 그 서술 방식을 분석하여 『별건곤』에서 재미가 창출되는 방식의 일단을 살펴 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별건곤』에 게재된 다른 기사와 동시대의 다른 잡지에 게재된 탐사 기사의 서술 방식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별건곤』의 대중적 서술 전략을 온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별건곤』, 탐사 기사, 재미, 서술 방식, 경성, 사적 공간, 대리만족, 탐사과정 기술, 탐사대상 묘사, 모험서사, 기자의 내면 고백, 세태 비평)

## 1. 서론

『별건곤』은 『개벽』 폐간 이후에 대중의 취미와 실익을 위한 잡지로 창간되었다. 그만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성격보다 문화적이고 오락적 성격이 강하다. 기자들은 기사의 기획에서부터 취재·서술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보다 '재미'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에로, 그로, 년센스'로 대표되는 『별건곤』의 성격은 그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잡지가 개벽사 발행 잡지 중 『어린이』 다음으로 긴 수명을 유지했던 점<sup>1)</sup>은 이러한 그들의 기획이 대중적 호응을 얻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별건곤』이 내세우는 '재미'는 주목을 요한다. '재미'란 개인적 감정이요, 취향이지만 유행에 민감한 사회·문화적 현상이기도 하다. 농업 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 느끼는 재미와 도시 중심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그것이 같을 리 없다. 『별건곤』에서는 달라진 시대와 사회의 재미를 탐구, 보급하여 대중의 근대적 감각과 감정을 고양시키려 했다. 달리 말해, 사회운동의 주체요 대상이었던 민족·민중을 미적 취향을 지닌 문화향유자요 감각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려 한 것이다.<sup>2)</sup> 그러므로 이 '재미'에 대한 탐구는 『별건곤』을 이해하는 핵심일 뿐

1) 『어린이』는 1923년 3월부터 1934년 1월까지, 『별건곤』은 1926년 11월부터 1934년 8월까지 발행되었다. 개벽사 발행 잡지의 발행 기간은 유석환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2, 11쪽, 〈그림 2-1〉 '개벽사 잡지 발행 현황'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선 역사적 맥락에서 엄밀한 고찰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의 초점에 맞지 않으므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 단, 이경돈의 『'취미'라는 사적 취향과 문화주체 '대중'』(『대동문화연구』, 제57집, 성대출판부, 2007. 3)이 참고할 만하여 그 논지를 간략히 밝힌다. 이경돈은 1926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취미와 미디어, 취향과 대중의 관계망을 고찰한다. 라디오라는 근대 미디어의 등장과 취미의 제도화가 같은 취향과 기호를 가진 '대중'을 출현시켰으며, 이것은 제국의 소비 자본주의 책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렇게 '주체로 소환된

아니라 이른 바 ‘대중 취향의 근대적 기원에 가 닿는 길이기도 하다.

『별건곤』 편집진은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전제로 한 다양한 서사를 발생시킨다. ‘기(記), 화(話), 담(談)’으로 발표되었던 그 서사들은 『별건곤』에서 시, 소설 같은 본격 문예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경돈이 밝힌 것처럼 그러한 글은 성격이 모호하고 안정적인 갈래가 아니라서 사실을 강조하지만 사실의 차원에서 논할 수는 없다.<sup>3)</sup> 그러한 서사의 목적이 사실의 전달에 있다기보다 ‘사실’이 불러 일으키는 실감 나는 재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탐사기’는 기자와 독자로 하여금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내밀한 공간을 탐사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즉 일종의 ‘탐정 놀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화(話), 담(談)’을 통해 독자는 듣기 역할만 하지만 ‘탐사기’에서는 기자와 함께 걷고 보고 들으며 곧 ‘기자 놀음’을 하게 된다. 다른 어떤 서사보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입체적인 재미를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미를 창출하는 결정적 요소는 서술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아직 『별건곤』 전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별건곤』의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즉 『별건곤』에서 말하는 취미, 실익, 민족, 계몽, 도시 문화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형식과 서술의 문제는 도외시해온 것이다. 그리고 ‘탐사 기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동안 탐사 기사는 소설 외 서사의 일종으로 소략하게 다뤄지면서, 주로 1930년대 탐정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

대중은 결국 ‘객체’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3)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제46집, 대동문화연구원, 2004. 6, 260~261쪽.

의의만 강조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이경돈의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과 이용희의 『1920-30년대 단편 탐정소설과 탐보적 주체 형성 과정 연구』<sup>4)</sup>를 들 수 있다.

이경돈은 『별건곤』의 소설 외 서사의 존재 양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탐사기의 특징을 간략히 분석한다. 여러 기획 탐사기를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정탐기(르포)로 보며, 1930년대 탐정소설과의 관련을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이용희는 『별건곤』 뿐 아니라 『삼천리』, 『동아일보』 등에 실린 정탐기를 함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의 서사 전략을 탐정소설적 요소에 따라 분석하여 탐정소설과의 관련을 밝힌다. 두 연구 모두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를 독자의 흥미에 초점을 두고 주목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그것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면밀히 살피지 않아서 탐사 기사의 특징과 서사 전략이 온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이 연구는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를 대상으로, 그것의 '재미'를 창출하는 서술 방식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탐사 보도'란 르포의 일종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건이나 정보를 찾아내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비행을 폭로, 고발하는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sup>5)</sup> 이 논문의 연구 대상도 그러한 의미의 탐사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별건곤』에서 그것은 대개 '탐사기(探査記), 암행기(暗行記), 정탐기(情探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용어는 남발되어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비유적으로 쓰인 경우<sup>6)</sup>가 있는데 그러한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斷髮娘 尾行記』<sup>7)</sup>처럼 기자 신분이 아니라 개인적 취미로

4) 이용희, 『1920-30년대 단편 탐정소설과 탐보적 주체 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 석사 학위논문, 2009.

5) 최화수, 『르포 라이팅』, 동방문화, 2007, 128쪽.

6) 綠眼鏡, 『秘中の秘 夫婦生活秘密의 大探險記』, 『별건곤』, 1928, 8.

미행하는 기사도 제외된다. 『별건곤』 발행 전 기간(1926. 11 - 1934. 8) 동안 발표된 탐사 기사는 총 23편이고, 그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1>

발표 월	제목	탐사 대상
1926. 12.	大京城白晝暗行記, 기자총출동(제1회) 1時間社會探訪	경성
	朝鮮八道·千態萬象의 農村 探訪記	농촌
1927. 1.	農村探訪記(其二), 貧亦難富亦難	농촌
	變裝記者暗夜探査記	경성
1927. 2.	記者總出動, 大京城白晝暗行記(제2회), 『一時間社會探訪』	경성
	懸賞讀物 南北隊 競爭記事, 殺人魔·刺身鬼 阿片窟 大探査記, 烈風酷寒七晝夜에 單身으로 冒險大探査	아편굴
	農村探訪記, 장가難! 시집難!	농촌
1927. 3.	戰慄할 大惡魔窟 女學生 誘引團 本窟探査記, 그들의 毒手는 집마다 노린다! 家庭마다 넘으라, 學校當局도 넘으라	여학생 유인단
	農村探訪記, 늙은이 難! 젊은이 難!	농촌
1927. 7.	大探査記 각정어로 變身 潛入하여 捕蛇軍의 巢窟에 一夜同宿, 京城名物, 各정어, 땅군의 珍奇한 生活内幕	포사군 소굴
1927. 11.	變裝出動 臨時OO 되어 본 記	전당국서사, 추탕집머슴, 자동차운전조수, 시주쟁이
	첫가을 農村實情探査記	농촌
1928. 2.	不良男女 一網打盡, 變裝記者 夜間探訪記	불량남녀
1928. 8.	本支社記者 五大都市 暗夜 大探査記	개성, 인천, 원산, 평양
1928. 12.	婦人記者暗行記, 村에서 逃亡은 여자로 꾸미고 女俳優募集에 試驗本記, 女優選擇의 珍奇한 試驗	여배우 시험장
1929. 1.	婦人記者 暗行記(其二), 女子苦學生으로 變裝하고 學生下宿村探訪記, 試驗때의 學生生活	학생 하숙촌
1929. 4.	記者 大出動 1時間 探訪 大京城 白晝 暗行記	경성
1929. 12.	딱딱이를 嚮導삼어, 記者總出, 大京城暗夜探査記	경성
1932. 1.	狂人の 나라 西八號室 探訪記, 이 세상에 누가 精神病者냐?	정신병동
1932. 2.	秘密家庭探訪記, 變裝記者-냉면配達夫가 되어서	가정
1932. 7.	記者總出 一時間밤거리 探訪	경성

7) 覆面子, 『斷髮娘 尾行記』, 『별건곤』, 1926. 12.

1932. 11.	五隊 記者出動時日 10월 25일, 子正後의 大京城 探訪	경성
	開城 夜話, 妓生尾行의 尾行記	개성 기생

연구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에서 서술 주체와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서술 태도 및 대상에 따른 주요 서술 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3에서는 탐사 기사의 서술 방식 및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4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 더 연구할 사항에 대해 제언할 것이다.

## 2. 서술 태도와 서술 대상

탐사 기사의 서술 주체는 탐사자인 기자이다. 『별건곤』 제2호부터 탐사 기사가 등장하는데 탐정처럼 증절모와 긴 외투를 입은 다섯 명의 기자 사진 위에 '記者總出動 大京城白晝暗行記'라는 제목이 제시된다. '松雀, 春坡, 石溪, 波影, 磯岩, 微笑, 雪熊'의 필명으로 제시된 그들은 개벽사 주요 편집진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다른 잡지의 편집인이기도 하고 문인이자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sup>8)</sup> 1930년대 들어와 『별건곤』의 편집진과 체제에 변화가 생기기<sup>9)</sup> 전까지 탐사기는 주로 그들이 담당했다. 탐사기 기자는 대부분 남자였지만 여기자가 참여한 경우도 있다. 그중 백시라의 탐사기<sup>10)</sup>가 성공적이며 나머지는 여기자가 남성의 보조적

8) 필명이 확인된 이로 春坡는 박달성, 波影은 방정환, 微笑는 이정호다.

9) “『별건곤』은 『혜성』이 창간되면서 1931년 3월호(통권 38호)부터는 평균 분량 35쪽의 이른바 '5전잡지'로 발행되었다.” 유석환,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성대출판사, 2011. 3, 246쪽.

10) 백시라, 『婦人記者暗行記, 村에서 逃亡은 여자로 꾸미고 女俳優募集에 試驗본 記, 女優選擇의 珍奇한 試驗』, 『별건곤』, 1928. 12, 『婦人記者 暗行記(其二), 女子苦學生으로 變裝하고 學生下宿村探訪記, 試驗때의 學生生活』, 『별건곤』, 1929. 1.

인 역할에 머물거나<sup>11)</sup> 탐사 의도와 내용이 모호하다.<sup>12)</sup> 탐사 기사의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주의적 시선이나 문학적 표현<sup>13)</sup>은 이러한 서술 주체의 성별 및 신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탐사기의 기자는 일인 다역을 해야 한다. 그는 기자이자 탐정이고, 탐사의 기획자이자 기록자이다. 탐사는 주로 편집국장의 동원령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명령은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조건을 둔, 굵직한 과업으로 제시된다.

(가) 『대경성의움직이는현상을박혀모으라!』…… 때는 十一月十五日의午後二時로三時까지<sup>14)</sup>

(나) 그러면 갈데업는 비밀굴의탐사가 동원령의내정이었다.<sup>15)</sup>

위와 같이, 제시된 탐사 대상의 범위가 ‘경성, 비밀굴’처럼 크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는 일은 기자의 몫이다. 탐사 대상이 지정된 경우라도 탐사 준비 및 실제 탐사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온전히 기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탐사는 암행(暗行)으로 이루어지

11) 「딱딱이를 嚮導삼어 記者總出 大京城暗夜探查記 十一月七日밤十二時부터」, 『별건곤』, 1929. 12, 제2대 탐사 기자 셋 중 둘은 여기자이다.

12) 「記者總出 一時間밤거리探訪」의 경우, 목차에서는 「男子의 歡樂境踏査記 女記者」라 하여 여기자의 시선에서 남성들의 환락상을 고발하는 내용인 것처럼 소개하였지만, 본문에서 여기자 탐사기는 한 편에 불과하고 그 대상도 여성들의 관심사인 백화점이며 탐사와 거리가 먼 피상적인 내부 정경 묘사에 그치고 있다.

13) 탐사 대상에 ‘여학생, 단발랑, 기생’등의 여자가 많고, 이들의 모던한 외모나 자유연애 주의는 부정적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탐사 대상 및 기자의 내면 묘사에서 비유적 표현이 적절히 쓰이고 있으며, 탐사기의 전체적인 구성과 소재목이 소설의 그것처럼 짜임새 있다.

14) 「大京城白晝暗行記, 기자총출동(제1회) 1時間社會探訪」, 『별건곤』, 1926. 12, 12쪽.

15) 「懸賞讀物 南北隊 競爭記事, 殺人魔·刺身鬼 阿片窟 大探查記, 烈風酷寒七晝夜에 單身으로 冒險大探查」, 『별건곤』, 1927. 2, 64쪽.



므로 그 대상에게뿐 아니라 기자들끼리도 탐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탐사기는 1인칭 시점으로 쓰이며,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인 '르포'와 비교할 때 그보다 더 주관적이다. 르포도 기사 중에서 주관성이 짙은 글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조사 내용이 좌우하는 데 반해, 『별건곤』의 탐사기는 그 내용보다 기자가 주인공이 되어 벌이는 활동(행위) 자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거리 탐사는 기자들이 늘 한탄하는 것처럼 특종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탐사 내용에 목표를 둔 것이라면 한두 회로 그쳤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3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도 탐사기를 읽는 재미는 탐사 내용보다 탐사 과정 및 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두 기자가 함께 탐사를 하고 탐사기를 쓰는 경우<sup>16)</sup>에도 그 서술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벌어진 일을 각각의 시점으로 번갈아 쓴다. 이러한 서술 전략을 통해, 탐사 기사의 초점이 편집진들이 표방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는 객관적 재현에 있다기보다 특이한 체험의 주관적 전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 대상, 곧 탐사 대상은 주로 경성인데 '현장탐사'와 '기획탐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장탐사는 주로 특정 시간대의 경성의 거리를 탐사하는 것이고, 기획탐사는 '아편굴 탐사'처럼 특정 주제를 정하여 탐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며칠 동안 탐사를 하는 것이다.

경성의 현장탐사는 낮과 밤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1926년 12월, 첫 탐사 기사인 『大京城白晝暗行記』 이후, '백주 암행기'는 두 차례 더 진행된다. 그것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의 낮 한 때에 한 시간 동안 경성의 어디든지 가서 약동하는 근대 도시의 모습을 사진처럼 포착해오는 과업

16) 『變裝記者暗夜探查記』, 『별건곤』, 1927. 1.

이다. 기자들은 '재판소, 부잣집, 종로네거리, 은행, 경찰서, 인사상담소, 당구장' 등으로 가 그 현장에서 맞닥뜨린 상황을 보고한다. 이러한 탐사는 갑작스런 명령을 받고 급박하게 이루어지므로 기자의 처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오히려 흥미를 더한다.

그 다음 호인 1927년 1월호에 제1회 『變裝記者暗夜探查記』가 게재되고, 松雀과 雪熊에게 임무가 부여된다. 그들은 굴 장수와 만주 장수로 변장하고 하숙집이나 색주가 등을 다니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 그 후 '암야 탐사기'는 '백주 암행기'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다. 밤의 탐사가 낮의 탐사에 비해 시간도 길고 방법도 다양하여 독자에게 더 흥미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탐사 기사가 점점 '에로, 그로'한 흥미를 추구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기삿거리를 찾기에 낮보다 밤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야 탐사 대상도 개성, 평양, 원산, 인천 등의 다른 도시로 확대<sup>17)</sup>되고, 이때 각 지역의 색주가는 주요 탐사지로 자리한다.

탐사기에서 가장 흥미를 끌고 완성도 있게 작성된 것은 특정 주제를 정하여 기획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범죄의 소굴, 특정 직업, 정신병원 등의 내밀한 공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에로, 그로'한 소문과 편견이 난무하는 공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탐사는 앞의 기사처럼 낮 한 시간이나 밤의 한 때가 아닌 며칠에 걸쳐 이루어진다. 편집진들이 현상 경쟁을 붙일 만큼 이 기사에 대한 지원과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이며, 기자들의 탐사 활동이나 서술

17) 『本支社記者 五大都市 暗夜 大探查記』, 『별건곤』, 1928. 8. 제목에 5대 도시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네 도시 기사만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원래 탐사 대상이 대구까지 포함하여 다섯 도시였으나 대구 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더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경성 탐사기와 더불어 농촌 탐사기도 시도되었지만 매우 다른 서술 양상을 보이며 탐사기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實情 探查記'라는 뜻의 '探情記'로 발표된 『朝鮮八道·千態萬象의 農村探情記』는 1926년 12월부터 4회에 걸쳐 연재되는데, 전반적으로 현장탐사보다 기자의 비평과 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자는 농촌의 실정을 알기 위해선 직접 가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회 본 대로 들은 대로 썼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을 탐사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농촌의 실정도 구체성과 현장성을 결한 채 일반화된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탐사 내용은 그 자체로 흥미를 끌지 못하고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기능할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회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2회부터는 목차에서 아예 '정탐기'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내용을 알리는 제목만 소개되어 있다. 1927년 11월의 『첫가을 農村實情探查記』는 경성 탐사기 처럼 기자들이 직접 농촌을 걸어 다니며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후 그런 기사는 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는 글의 목적이 달라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즉 농촌 탐정기는 흥미보다 농촌 문제에 대한 계몽의 의도가 앞섰기 때문에 점점 논설적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탐사기'라는 형식이 재미를 추구하는 형식이며 글의 성격이 그것을 잃었을 때 탐사기 성격도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술 대상에 따라 주된 서술 방식과 그 효과도 달라진다. 경성 탐사기, 특히 낮 한 시간 동안의 『大京城白晝暗行記』는 탐사 과정 및 대상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루며 현장감을 높이고, 기획기사는 일종의 모험서사를 이루며 긴장감을 더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탐사기는 '기술, 서사, 묘사, 비평'의 서술 방식을 사용

하여 여러 재미를 창출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그에 대해 살핀다.

### 3. 서술 방식 및 효과

#### 3-1. 탐사 과정의 기술과 대상 묘사를 통한 '현장감'

탐사 기사는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된다.

탐사 계기 - 탐사 기획 - 탐사 준비 - 이동 경로 - 탐사 시작 - 탐사 진행  
- 탐사 끝 - 귀사 (귀가) 경로 - 탐사 소감 및 평가

편집국장의 명령을 받고 탐사 기획을 하는 단계부터 탐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경로까지 탐사의 전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된다. 그리고 탐사기는 정해진 시간 동안 완수해야 하므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서술된다.

(가) (시간은오후한시!) S씨는어데로가는지 우미관압해서 헤어져서 구리개동 양척식업을지나명치정오르드러섯다. 진고개까지 거의다가서 왼편으로 다 낡은 이층벽돌집이잇스니 이집이 즉 경성에단두곶밭계업다는 인사상담소 의하나이다 …(중략)… 썩들어스닛가시간은한시십이분! …(중략)…무한히동정을하면서 시계를쳐다보니 꼭두시다 …(중략)… 시계를보니 오후두시십팔분이다느것구나!하고 뛰어나오려하닛가<sup>18)</sup>

18) 微笑生, 『無職者로變身하야 職業을求하러가본이야이』-(두눈에핏발도는人事相談所 의한時間)-, 『記者總出動, 大京城白晝暗行記(제2회), 『一時間社會探訪』, 『별건곤』, 1927. 2, 34~38쪽.

(나) 슈을뵈뵈뵈날이 一月十七日이다 …(중략)… 第二日인一月十八日!<sup>19)</sup>

(가)는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탐사이기 때문에 서술이 분 단위로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아편굴 기획 탐사로 7일 동안 이루어진 탐사라서 날짜에 따라 서술된다. 탐사 활동이 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 공간을 이동하며 정보를 조사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표기는 사실성을 높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현장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인터뷰의 직접 인용도 그러한 기능을 하여 독자가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뜰에를들어서니 혼양은세수대야두개와 깨진뚜가리한아만뵈이다. 부엌에도석 유상자만뵈개개되고 아모것도업다. 옷방과 아랫방의문도꼭꼭뵈치였는데 무슨이 상한악취가 코를찌른다. 맞치 동물원의여호잇는곳을간것갓뵈다.<sup>20)</sup>

위의 글은 뱀을 잡아 파는 땅꾼의 집에 대한 묘사이다. 소설의 한 장면처럼 그 정경이 생생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편집국에서 기자들에게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1, 2회 경성 백주 탐사기에서는 “대경성의움죽이는현상을박혀모으라!”거나 “움죽이는경성의편영을그리여오라”는 명령이 제시되는데, ‘박혀 모으라’거나 ‘그리여 오라’는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탐사기의 서술 전략이 사진이나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탐사는 주로 엿보고 엿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기삿거리가 될 만한 사람을 포착하여 그를 엿

19) 石火生, 『懸賞讀物 南北隊 競争記事, 殺人魔・刺身鬼 阿片窟 大探查記, 烈風酷寒七晝夜에 單身으로 冒險大探查』, 『별건곤』, 1927. 2, 64쪽.

20) 松雀生, 『大探查記 각정리로 變身 潛入하여 捕蛇軍의 巢窟에 一夜同宿』, 『별건곤』, 1927. 7, 80쪽.

보다가 직접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고, 신분을 위장하여 잠입 취재하면서 상대가 모르게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묻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중 『婦人記者暗行記, 村에서 逃亡한 여자로 꾸미고 女俳優募集에 試驗本記, 女優選擇의 珍奇한 試驗』에서 백시라의 인터뷰 기사는 특이한 면이 있다. 이 탐사 대상은 ‘여배우 모집 시험 현장’이고, 그것이 주로 인터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탐사 내용도 거의 인터뷰 기사가 차지한다. 여배우 지망생으로 변장한 백시라는 인터뷰 당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면접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한다.

이번에는 이편에 공세를취해보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저편에서 무어라기전에 먼저 『이거보십시오다른데서드르닛가 여우를뽑는데제일큰조건은 얼굴이엿븐것이라지요』…(중략)… 그러나 시간이만히남지안엇스니 내가 알고싶은것을얼른알고싶은욕심에 뒤등대등 련락업는말을작고무엇습니다 …(중략)… 좀 어둔밤에홍독개이지만 내욕심만채우느라고 이러케무엇습니다 …(중략)… 『또한가지 실례의말을못겻습니다. 여행후에밥값이모자랄때는 여관에다 임시로여우를남겨두고 온다지요』<sup>21)</sup>

위에서와 같이 백시라는 면접관이 질문할 사이 없이 여배우에 대한 여러 사회적 편견과 소문의 진위를 묻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자 본인이 거둬 밝히는 것처럼 맥락도 없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에 기자의 욕심을 채우느라 계속된다. 한편, 이 기사에서 면접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백시라의 대답은 본인도 금방 잊을 정도로 중요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 꾸민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기사는 제목과 달리, ‘여배우 시험 현장’보다 여배우와 관련된 독자의 호기심에 더 초점을 두고 연극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를 해소시키려 하

21) 백시라, 앞의 글, 『별건곤』, 1928. 1, 116~117쪽.

고 있다.

### 3-2. 모험서사를 통한 '긴장감'

탐사 기사의 독특한 재미 중 하나는 '긴장감'이다. 기자들은 탐사의 계기와 준비, 그리고 탐사 현장에 대한 서술에서 긴장감과 호기심을 부추기는 전략을 사용한다. 대개 탐사는 편집국장의 '동원령'에 의해 시작되는데, 그 '동원령'이라는 말 자체가 긴박감을 준다. 그것의 사전적 의미가 주로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내려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감으로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느낌과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탐사 기사의 긴장감은 '암행(暗行)'에 의해 발생된다.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탐사이므로 기자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변장을 한다. 기자라는 도시의 지식 계급이 거리를 떠도는 장사치나 배달부, 마약중독자 등으로 변장하는 과정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또한 그로부터 신분이 들통 날 것 같은 긴장감이 연출된다.

(가) 아는사람만흔얼굴에 수염까지났스니 첫불리나섯다가 어느친구에게들키기나하면엇저리십기도하고, 여관방이나 술집방을드려다보자면 얼굴을갓갑게드리대게는되겠고……그래도지나가는사람마다 내얼굴만주시하는것갓다.<sup>22)</sup>

(나) 그녀의내외주점에드러갓다가, 나는혼이나서 쫓겨나왔다. …(중략)… 큰일났다. 『이것 들키면 창피하다』 하고 혼이나서뛰어나온 것이다<sup>23)</sup>

(가)에서처럼 기자는 변장을 하는 순간부터 아는 사람을 만나 신분이

22) 松雀生, 雪熊生, 앞의 글, 63쪽.

23) 위의 글, 65쪽.

탄로날까봐 마음을 조인다. 그러다 (나)에서처럼 정말 아는 사람을 발견하면 큰 위기에 맞닥뜨린 듯 대경실색하며 줄행랑을 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실제 사건의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과장된 것이다. 물론 탐사 활동 중 아는 사람을 만나면 탐사를 망칠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이고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일도 아니다.

요컨대 (나)에서와 같은 과장된 표현은 독자의 긴장감을 부추기기 위한 일종의 수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수사 중의 하나로 ‘놀라지 마시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면, 그 앞에 ‘놀라지 마시라’는 표현을 앞세운다. 표면적으로는 놀라지 말라지만, 곧 놀라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며 오히려 ‘놀람’의 효과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기획탐사처럼 탐사 공간이 범죄의 소굴이거나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면 거기서의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그럴 듯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으로의 잠입 및 활동 과정 전반에 긴장감이 흘러 흥미를 배가시킨다. 경성의 낮과 밤 탐사에 이어 기사들끼리 현상 경쟁까지 시킨 제1회 기획 탐사는 「懸賞讀物 南北隊 競爭記事, 殺人魔・刺身鬼 阿片窟 大探查記, 烈風酷寒七晝夜에 單身으로 冒險大探查」이었다.

雪中登山은 눈이아니오니 할일이업고 暗夜探險은 意味가 적으니 그만두라는 것이요<sup>24)</sup>

위에서 인용한 “암야탐험은 의미가 적으니 그만두라”는 동원령을 통해, 기존의 경성 거리 탐사보다 더 심도 있는 탐사가 요구됨을 알 수 있

---

24) 석화생, 앞의 글, 64쪽.



다. 특히 '흥미' 못지않게 '의미'를 강조하는 동원령에 의해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편굴을 탐사하기로 한다. 기자의 사명감과 용기를 필요로 했던 아편굴 탐사는 한 편의 탐정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탐사기의 소재목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動員令!動員令!/ 眞阿片·假阿片/ 變裝하고苦心探查/ 차졌다! 걸렸다! / 刺身鬼의本窟侵入/ 한대마저보니까/ 中國人の殺人窟/ 襲擊!中國人魔窟襲擊/ 美人과마조누어한대먹고 / 빠른놈먹는놈조사

이와 같이 아편굴을 추적하는 과정, 거기에서 직접 아편을 맞아야 하는 위기, 중국인 아편 굴까지 잠입하여 더 독한 아편을 맞는 서사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한다. 한 마디로 이 탐사 기사는 일종의 모험서사라 할 수 있다. 기획기사에서 이러한 서사가 더 그럴 듯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탐사 기사에서도 그러한 구조가 보인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험의 계기(동원령) - 모험 준비 (정보 탐색, 변장) - 모험 시작(현장잠입) - 위기 발생(신분 노출 위험) - 위기 모면(연기, 도망) - 과업 완수 후 귀가 (탐사 마치고 귀가)
--

요컨대 탐사 기사는 기자를 주인공으로 한 일종의 모험서사로 서술되어, 독자들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자극하며 재미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 3-3. 기자의 내면 고백을 통한 '공감'

앞에서 밝혔듯이 『별건곤』 탐사 기사는 탐사 주체이자 서술 주체인 기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1인칭 대명사 '내가 빈번하게 쓰이며

그의 내면도 곳곳에 기탄없이 표현된다.

(가) 명예로운일이랄가 고로운일이랄가 … 경찰서형사와갓흔직권도업고 아모 사건이나기재할수잇는자유도업스니 아모런재조를피운대도 독자를놀낼만한『거리』가업겟서서 꽤고심하였다 … 남모르는혼갓고심이 몇배나 더하였다 … 25)

(나) 불상한소년의 정경이 하도 딱하야 거름이 잘걸리지를 안는다 … 아! 가여운소년! 내가나온후에다행히구직이되어 갖는지? 이글을맛초면서도 그불상한소년이 바람부는길거리로 타박 타박걸어가는 가여운형용이 보이는듯 보이는듯하다.26)

(다) 찾기어려운비밀굴에드러온길에 한잔맛이나보려고 한집에드러가닛가 어이쿠머니 옷통버슨병아리가튼색시를 코떠러진식겸인친구가 피고안저서 놀줄도모르고 뻔뻔히 내다보고있다. 엇더케단번에정이 떠러지는지 구렁이를밧은것처럼 그냥튀어나와서27)

(라) 단삼십전에 그참담한연극. 돈이엇더케말르고 또 무서운것인지를 두골을 두들겨마즈면서배흔것갓다. 술한잔먹자하고도 삼사원돈은 우습게써오지 안엇느냐 돈이 무서운것을 처음배흔것갓다.28)

(가)는 기자가 동원령을 받고 나서 탐사 대상과 방법을 모색하며 고심하는 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기자의 탐사 활동에 대한 곤란 및 애환에 대한 고백이 많다. (나)는 인사상담소 탐방을 나간 기자가 직장

25) 波S, 『戰慄할 大惡魔窟 女學生 誘引團 本窟探查記, 그들의 毒手는 집마다 노린다! 家庭마다 넓으라, 學校當局도 넓으라』, 『별건곤』, 1927. 3, 76쪽.

26) 微笑, 『職業을求하러가본이야이』, 38쪽.

27) 波影生, 『米豆나라仁川の밤世上』, 『本支社記者 五大都市 暗夜 大探查記』, 『별건곤』, 1928. 8, 72쪽.

28) A記者, 『典當局書仕가되야 北쪽京城의속살림을보고』, 『變裝出動 臨時○○되어본記』, 『별건곤』, 1927. 11, 16쪽.

을 구하는, 가난한 소년을 보고 그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기자들은 탐사 도중 가난하고 딱한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토로한다. (다)는 인천의 밤거리 탐사를 하는 기자가 비밀 색주가의 현장을 목격하고 느낀 혐오감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기자가 전당포 임시 서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가난의 참담함과 돈의 무서움, 그리고 평소 자신의 돈 쓰는 태도에 대한 반성을 나타낸 것이다.

대개의 기록물에서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서술자의 목소리나 심리가 억제되는 것과 달리, 『별건곤』의 탐사 기사에서 기자의 심리는 탐사 내용의 보고 못지않게 빈번히 서술된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자들의 탐사 기사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즉 당시 기자들에게 탐사 기사는 특수한 체험의 생생한 보고로 여겨져 탐사 과정에서 느끼고 겪은 것을 최대한 서술하려 한 것 같다. 다음과 같은 2인조 탐사 기사의 서술 방식도 그러한 점을 짐작케 한다.

(가) 만주장사인웅군은, 시침이딱뚫고 만-주노호야호-야하고 소리질러웨친다.  
웅군의 호야호야소리가조곰도어색하지안코 능청스러운것을보고 나는 저  
옥이 마음이든든하여서 웅군의엽해갓갓게서서뒤를 딸었다.<sup>29)</sup>

(나) 말썰기자로 경성명물예한목끼인노송작은 굴장사로 차리고 압서나섯다 ...  
지나가는것은 트레머리두분이엿다. 송선생이빼놓치아니하고 갓갓게가서  
길을막고<sup>30)</sup>

위의 인용은 松雀과 雪熊이 굴 장수와 만주 장수로 변장하고 경성의 밤거리를 탐사하는 기사이다. 가)는 松雀의 시점에서 雪熊의 능청스러

29) 松雀, 雪熊, 앞의 글, 63쪽.

30) 위의 글, 64쪽.

운 탐사 모습과 그에 대한 든든함을 묘사한 것이고, 나는 雪熊의 시점에서 松雀의 치밀하고 재빠른 탐사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탐사 주체에 더욱 주목하도록 하고, 탐사자끼리 서로의 증인이자 평가자가 되게 하여 그들의 탐사 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높인다.

요컨대 독자는 기자의 내면 고백을 통해 탐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 및 곤란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한 탐사라도 그 과정 및 기자의 심리를 서술함으로써 한 편의 탐사기를 채울 수 있다.

유명하다든 밋창빠. 비너스의 등불이 외롭다...아아 모다 쓸쓸하다...우선 말하자면 서울받거리 이상업다. 그위로올라오면서도 무인경이다. 이거리의등장인물은 탐방나스나한사람인가보다 ... 내가마튼 코스는 무사원만이종요 그러나 무사원만이 중요되었슴으로 독자께는 미안. 어쩌케 연극이라도만들고십흐나 그것은 다른기자들이 모다마타할테니까 고만두고<sup>31)</sup>

위의 기사는 자정후의 경성 거리 탐방기인데, 사람도 없고 술집이나 카페도 문을 닫아 탐사거리를 찾지 못한 채, 기자의 외로움과 독자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어쩌케 연극이라도만들고십흐나 그것은 다른기자들이 모다마타할테니까 고만두고”라는 표현이다. 이 말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탐사 보도에서 기삿거리를 찾지 못했을 때 허구로라도 꾸미고 싶은 기자의 강렬한 욕망이 암시된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이 서술에도 영향을 미쳐 탐사기사의 가공성을 높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1) D기자, 「외로운 거리」, 「五隊 記者出動(時日 10월 25일), 子正後의 大京城 探訪」, 『별건곤』, 1932. 11, 8쪽.

### 3-4. 세대 비평을 통한 '쾌감'

'탐사 기사'란 어떤 대상이 감추려는 비리나 문제를 캐내어 폭로하는 기사로서 기자에게 예리한 비판의식이 요구된다. 『별건곤』 편집국에서 기자들에게 요구했던 '흥미 있고 뜻 있는 탐사' 중 '뜻'은 그러한 비판의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탐사 기사에서 그 뜻은 주로 세대 비평으로 표현되고, 주요 비판 대상은 허영과 사치에 빠진 불량남녀학생이다.

(가) 세학생은 제각각한사람씩의여자를끼고안저 배급흔사람이 밥그릇에매달리듯 유부를주물르면서뺨에 뺨을대이라고 애를쓰고있다 …(중략)… 학교당국이이꼴을보면 무어라고설명할년지 사진기가잇스면 박혀다보여주 고싶혔다 …(중략)… 아아 말세는갓가워오도다<sup>32)</sup>

(나) 아아 그만이다. 탐사도그만이다. 무엇을더쓰랴 독자는 이것을넌고엇더타하느냐? 지저분한기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지저분한기록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가정부형과 또 학교당국에게넌혀야할것을밧는다. 결코 남의일이 아니다 <sup>33)</sup>

(가)는 경성의 밤을 탐사하다가 남학생이 기생과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한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며, (나)는 여학생을 불량소녀로 유인하는 소굴을 탐사하고 나서 세태를 비판하며 경계하는 글이다. 이때 '불량소녀'란 중개자에 의해 부잣집 청년들과 연애하는 여학생들로, 그들의 연애는 현대 사회의 '원조 교제'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부모와 선생의 눈을 피해 유흥문화를 즐기고, 환락에 빠지는 세태가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망치는 원인으로 비판된다. 그것은

32) 松雀, 雪熊, 앞의 글, 64-66쪽.

33) 波, 앞의 글, 89쪽.

학생 신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별건곤』이 학생 계층을 주요 대상 독자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별건곤』 창간호에서는 가난한 노동 대중의 취미잡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호가 거듭될수록 『별건곤』은 중산층 청년과 학생 독자에 초점을 두고 기획된다. 하숙촌이 주요 탐사 지역 중 하나였던 것도 편집진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학생 독자의 호기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당국이 함께 비판된다. 위의 인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불량학생을 비판하고선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을 보고 싶다거나 이러한 사태를 학교 당국자들에게 고발하고 싶다는 욕망이 표현되는데 그것은 불량학생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당국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표현과 다름없다.

대부분의 탐사 기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을 탐사하여 그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성격을 띠지만 탐사 결과, 대상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긍정적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땅꾼’ 탐사 기사가 그에 해당된다. 탐사 전 여러 불미스런 소문을 듣고 대상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기자는 탐사 후 그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모습에 감동받는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도 달라진다.

돈푼이나잇고 놀너다니는사람들은 우리는사람가티보지도안코 돈도한푼안이 주면서도기생에게는몇백원몇천원을물쓰듯하며 기생의입을향내나는입으로만알고 입을 다정스럽게맞치지만은 실상은우리가잡은 배암을먹는입을맞치는것입니다.<sup>34)</sup>

위에서와 같이 땅꾼의 말을 통해 그들을 무시하고 동정하지 않는 부자들이 비판된다. 땅꾼이 천대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뱀에 대한 혐오감에

34) 松雀生, 「大探查記 각정이로 變身 潛入하야 捕蛇軍의 巢窟에 一夜同宿」, 83쪽.

서 비롯되는데, 부자들의 향락 대상인 기생이 땅꾼들의 주요 소비자임을 밝혀 기생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훼손한다. 향락문화가 주요 비판 대상이 되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기생도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 항목인 '그들이 본 사회상'에서는 일제 통치 이후 땅꾼들의 생활이 더 곤란해졌음을 밝혀 통치 체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이와 같이 세태 비평은 학교장, 부자, 학생 등의 사회적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의 이면을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쾌감을 준다. 그래서 비평 없이 감각적인 흥미만을 추구하게 되면 탐사 기사의 성격을 잃게 된다.

오늘밤은 에로를 한두마리꼭 획득해야하겠다 - 이리케 단단한 결심을 하고 나는 파고다공원 압해서 한강교행의 전차를 집어탤다...(중략)... 에로획득! 그리고 동무의 안해에 히야까지! 망신! 열한시에 세사람은 전차안에서 오늘밤의실패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서맷다.<sup>35)</sup>

위의 기사에서 단단히 결심하는 “에로 획득”은 ‘불량남녀의 행태 탐사’가 아니라 기자 자신의 에로 체험을 말한다. 한 마디로 이 기사는 허룻밤 연애 상대를 구하러 나갔다가 망신만 당한 기자의 에피소드로서 탐사의 성격을 전혀 띠고 있지 못하다.

#### 4. 결론

1926년에 창간된 『별건곤』은 대중의 취미 진작을 표방한 최초의 잡지

35) 『실패한에로진』, 『記者總出 一時間밤거리探訪』, 『별건곤』, 1932. 7, 18~20쪽.

로서 '대중 취향이나 문화의 근대적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직 『별건곤』의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충분히 구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별건곤』을 이해하는 핵심인 '재미'에 대한 연구가 등한시되어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를 대상으로 '재미'를 창출하는 서술 방식을 연구하여 『별건곤』이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의 일부를 밝혀 보았다.

『별건곤』 제2호부터 등장한 탐사 기사는 시간이 갈수록 '흥미'와 '뜻'을 더하며 『별건곤』을 재미있는 잡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는 『별건곤』 탐사 기사의 양과 질에 있어서 전성기라 할 만하다. 앞의 <표 1>을 참고할 때, 총 23편의 탐사 기사 중 18편이 1920년대에 발표된 것이고, 1930년대는 1932년에만 다섯 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과 서술의 질 이 20년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1929년까지 게재되던 탐사 기사가 1930년에 갑자기 한 편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기사의 성격과 관련 있어 보인다.

탐사 기사가 '흥미'와 '뜻'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의 무게 중심은 '뜻'보다 '흥미'에 더 가 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흥미만을 추구해서도 온전한 탐사 기사를 쓰기 어렵지만 흥미보다 뜻을 추구하면 春波의 『농촌탐정기』처럼 글의 성격이 변질된다. 즉 탐사 기사는 『별건곤』의 편집 기획이 재미를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930년처럼 『별건곤』의 성격이 정치, 경제적인 데로 기울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리고 탐사 기사의 가장 큰 재미는 기자가 탐정처럼 문제의 현장에 잠입하여 활동하는 데 있으므로, 탐정소설이 그 역할을 대신할 때에도 존재 의의를 잃는다. 이러한 점에서 1932년에도 탐사 기사가 보이긴 하지만 그 역사적 기능은 1920년대에 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탐사 기사의 의의는 근대 도시의 이면을 엿보는 입체적인



서술 방식의 창출에 있다. 이면이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소문과 상상이 무성한 곳이다. 도시에서의 그것은 곧 '사적 공간'에 해당된다. 농촌과 달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도시에서 사적 공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이다. 그렇게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을 탐사 기사에서는 기자의 특권을 가지고 침범하여 엿듣고 엿본다. '아편굴'이나 '여학생 유인단 소굴'과 같은 범죄 현장, 색주거나 카페와 같은 영업장소뿐 아니라 '하숙촌'이나 일반 가정집까지 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탐사 기사에서 '사적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준다.

경성의 대낮 거리를 탐사하면서도 열린 문 틈 사이로 남의 가정집을 엿보는 기자의 눈은 독자의 눈과 다름없다. 독자가 보고 싶지만 보기 힘든 '타인의 사적 공간'을 기자를 통해 보고 있다는 대리만족이 바로 탐사 기사가 지닌 재미의 비결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앞에서 분석한 다양한 서술 전략과 방식이다. 탐사 과정의 상세한 기술, 탐사 대상에 대한 생생한 묘사, 탐사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 1인칭 시점의 현재형 서술 등은 독자의 시선과 감각을 탐사 현장으로 이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사적 공간을 보고 있다는 환상은 탐사 현장에 대한 환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논문은 『별건곤』 게재 탐사 기사의 서술방식을 분석하여 『별건곤』에서 재미가 창출되는 방식의 일단을 살펴 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시대의 다른 잡지에 실린 탐사 기사와 『별건곤』에 게재된 다른 기사의 서술 방식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야 『별건곤』의 대중적 서술 전략을 온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별건곤』, 개벽사, 1926. 11-1934. 8.

### 2. 논문

- 김진량, 『근대 잡지 『별건곤』의 취미담론과 글쓰기의 특성』, 『어문학』 88호, 한국어 문학회, 2005, 331~352쪽.
- 오선영, 『대중소설의 유행과 장르 분화 - 『별건곤』 계재소설을 중심으로』, 『문창어 문논집』 46호, 문창어문학회, 2009, 119~144쪽.
- 오장근, 『사건보도, 사태보도, 르포르타주 - 정보위주 신문텍스트의 텍스트유형 분류를 위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0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189~211쪽.
-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2.
- \_\_\_\_\_,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73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1, 249~287쪽.
- 이경돈, 『1920년대 단행서사의 존재양상과 근대 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
- \_\_\_\_\_, 『『별건곤』과 근대 취미 독물』, 『대동문화연구』 4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4, 249~287쪽.
- \_\_\_\_\_, 『취미라는 사적 취향과 문화주체 '대중'』, 『대동문화연구』 5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7, 233~259쪽.
- 이용희, 『1920~30년대 단편 탐정소설과 탐보적 주체 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전혜진, 『별건곤에서 드러난 도시 부르주와 문화와 휴양지 표상』, 『한국언어문화』 제4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5~31쪽.
- 천정환,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2004년 봄호, 역사문제연구소, 2004, 343~363쪽.
- 최애순, 『1930년대 탐정의 의미 규명과 탐정소설의 특성 연구』, 『동양학』 제4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23~42쪽.

### 3. 단행본

-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 최화수, 『르포 라이팅』, 동방문화, 2007.

##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of Reportage in *Byeolgeongon* and its Fun Effect

Choi, Bae-Eun(Sookmyung Women's University)

*Byeolgeongon* is the first magazine to claim to advocate the promotion of the public taste in modern Korea, and so it is thought to be an important material in tracing the modern origin of popular culture in Korea. Because "fun" in *Byeolgeongon* was a key element, its editorial staff made an various attempt to draw the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We need to pay attention to 'reportage', one of their attempts, as the unique narrative strategy, which caught readers' interest. In this paper, I studied how the narrative of reportage in *Byeolgeongon* created 'fun', and tried to illuminate the popular-style writing shown there.

"Reportage" in *Byeolgeongon* is an article reporting about it after reporters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editor investigate a specific area during a limited time. Reporters, the subjects of narrative, are also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and they perform many roles. The object of investigation is primarily 'Gyeongseong' or 'Seoul' under Japanese Imperialism. In this case, the space of investigation includes such covert ones as the streets of 'Gyeongseong' at a certain time of day, a cesspool of crime, bar-whorehouses, boarding-house villages, private homes, and the like.

The narrative in *reportag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s described in detail in the present tense, and the vivid description of the target-site and the direct quote of on-site interviews give a sense of reality. Second, the adventure narrative that utilizes 'infiltration' and 'disguise coverage' of reporters adds interest and thrill. Next, the frequent psychological description of reporters increases the readers' understanding and empathy for the situation and investigators. Finally, revealing the hidden corruption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criticizing social conditions lead the readers to the pleasure.

In view of the overall discussion above, it is important that 'reportage' in *Byeolgeongon* created the stereoscopic narrative, which enabled us to glimpse the hidden side of modern city. In other words, the narrative style of 'reportage' seems to have provided

readers with 'vicarious satisfaction' in the way reporters lead them to the private space, which cannot be seen even if readers want to.

I think this paper has a special meaning in that I have analyzed the narrative of 'reportage' in *Byeolgeongon*, which has seldom been dealt with so far, and examined how 'fun' is created in *Byeolgeongon*. However, it will be possible to reveal the complete narrative strategy after the narrative of the other articles in *Byeolgeongon* is also analyzed and considered in a comprehensive manner.

(key words : *Byeolgeongon*, reportage, fun, narrative, *Gyeongseong*, private space, vicarious satisfaction, description of investigation process, description of investigated object, adventure narrative, internal confession of reporters, social criticism)

투고일 : 2014년 2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4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